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십오 년 만이다. 옆 집 아이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제대하고 취직했다고 양복 사러 나갈 만큼 성장할 세월이다. 이십오 년 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늦둥이를 낳은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생각도 하지 않은 때 덜컥 잉태된 것이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 창세기 21:1-2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사라를 돌보셨고,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사라는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다. 노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난 것은 두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 창세기 18:10

작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말씀을 들은 사라는 웃어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한이 이를 때’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을 때, 사라는 정말로 아들을 낳았다. 아이 이름은 당연히 ‘이삭’이라고 지었다. 자식 낳은 것이 기뻐서 ‘웃음’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기 때문이었다. 차마 웃음을 참지 못하던 두 사람은 이제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 마다 말씀 앞에 실소를 금치 못했던 자신들의 행위를 되새기게 되었다.

이삭은 난 지 팔 일만에 할례를 행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일부였다. 이제 이 아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아이로 자라게 할 책임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었다. 이 때 아브라함은 백 세, 사라는 구십 세 였다.

기도하매, 출산하게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체념하고 있었다.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실 때는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 수록 체념이 쌓여갔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는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십삼 년만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같이 아니라 사라가 낳은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 원한다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체념한지 오래이고 기도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단으셨음이라 / 창세기 20:17

이런 아브라함이 기도했더니 아이가 태어났다. 사라를 데려갔던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인이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이 기도하매 하나님께서 출산하게 하셨다. 정작 자신은 이십사 년을 자식을 낳지 못하는데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했더니 아기 울음소리가 난 것이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체념과 포기엔 놀리면 기도의 능력을 잊게 된다.